



그레이스로 돌아올 꿈을 꾸며

한국에 있는 주영형제는 그레이스 학교 재학시절의 추억을 더듬어 봅니다. 거의 20년 전에 개교한 그레이스 학교에 다니게 된 것은 자신에게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주영형제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담임교사는 렌몬(Lanmon)선생님이었습니다.

어린시절 주영형제는 여자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테니스코트에서 개구리를 잡아 여학생들에게 던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그는 같은 반 남학생을 발로 찼고 그래서 발톱이 깨진일도 기억합니다. 그가 성숙해가면서 그의 태도는 변했습니다. 주영형제가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은 학교 대표 축구팀의 일원으로 그레이스 학교가 사상 처음으로 축구 시합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치앙마이(Chiang Mai)에 사는 동안 주영형제 가족은 평범한 항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산족 마을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가족의 필요를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자주 가족들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주영형제는 말합니다. "그레이스 공동체가 갈라진 틈을 메워주고 가족의 의미를 깨우치게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부모님은 학생들의 삶에 경건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학교의 메시지는 주영형제의 마음 속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요즘 그레이스 학교에서는 한국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교과과정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한국어 과정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안식년으로 한국에서 지낼 때 주영형제는 7학년(중1) 학생이었는데 꽤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주영형제가 한국 교과서를 이해 하도록 교과서 단어를 영어로 번역해 주었습니다.

10년 전에 주영형제는 그레이스 학교를 졸업했고 한국에 위치한 영어사용대학에서 계속 공부했습니다. 이제 주영형제는 의사이며 결혼해서 딸을 두었습니다. 그의 꿈 중의 하나는 그레이스로 돌아와 가르치고 또, 자신이 그랬던 것 처럼, 딸이 그레이스 학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